

# 순천 '조례호수공원' 본격화

## 농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 임대 협의 올 공사 착수...사업비도 40억원 절감

순천시 조례호수공원 조성의 걸림돌이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와 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일부 시설물 설치 부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촌공사 새청사 부지를 제공하며, 임대 사용료로 매년 1천만원씩 10년간 1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원 시설지구 3만5천㎡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근린 경관 지구 5만3천㎡는 임대 사용할 수 있게 돼 40억원의 보상 사

업비가 절감되게 됐다. 시는 당초 452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조례 저수지와 주변 임지 18만3천㎡에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편입토지 환지 요구 등 농촌공사 측과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호수의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화양 나진어린이집 준공 영아·독서실 등 갖춰

여수시 화양면 시립 나진어린이집이 새롭게 단장된다. 나진 어린이집은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지난해 9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에 착수, 5개월여만인 4일 준공식을 갖는다. 나진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천66㎡, 연면적 387.84㎡로 1층에 사무실, 영아실, 급식실, 독서실을 갖추고 2층에는 유아실, 양호실, 다용도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재래시장 이용해 주세요" 여수시 공무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지역 재래시장에서 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여수시, 남면 작도 일대 '육성수면' 재지정 신청 포기 여수-남해 '어업분쟁' 일단락

2005년부터 공유수면에서 키조개 채취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어온 여수와 경남 남해어민들의 어업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최근 돌산청사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육성수면 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 만료되는 남면 작도 인근 해역 '육성수면' 2천816ha에 대한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수시는 이 자리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및 전남과 경남 양 도간의 화합과 상호 해양관광개발 협력을 위해 육성수면 지정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

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2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수시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상 2천816ha를 '육성수면'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해 경남지역 어민들이 반발, 남해와 여수 선적 어선간 조업분쟁이 야기돼왔다. 경남도도 지난해 7월 육성수면 바로 옆 해역 6천ha를 '연구·교습 어업 구역'으로 지정해 전남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에 대응하는 등 키조개 분쟁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순천대 공대 이전 갈등 장기화 되나

### 市-대학, '합의' 실패...시민들 "대승적 차원 해결을"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 측과 순천시가 최근 대학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지난 1일 잠만재 총장과 노관규 시장이 일련의 갈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가칭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구성, 향후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를 1시간 가량 앞두고 핵심 사안인 공대의 광양 이전에 대한 '구두 약속'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시가 공대의 광양 이전 중지를 구두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해와 합의문 발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대의 광양 이전 문제가 핵심인데 순천대 측은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만 말해 발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 시민들 사이에는 "양측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구례 상설시장으로 오세요"

### 11억 투입 새 단장 마쳐

구례 상설시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 맞이에 나섰다. 구례군은 지난 1일 서기동 군수를 비롯해 김종영 군의회 부의장, 시장상인,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시장 개장식을 가졌다. <사진> 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업비 10억9천 만원이 투입돼 57개 점포가 들어 있는 2천741

㎡의 건축물의 지붕방수 공사와 기둥 보, 벽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지난 76년 개장한 구례 상설시장은 시설이 노후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기동 군수는 "5일 시장과 상설시장을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시장 내 청결유지와 서비스 분야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무안 452-8535	나주시 332-5544 나주군 332-7764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보성 853-9700	완도 554-6677	장성 392-2100
순천 746-8111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고흥 833-9900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녹동 842-212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구례 783-8111	강진 434-6830	광산 944-0444
곡성 362-8111	함평 324-8111	

## 여수해수청 '2월의 수산물' 새조개 선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2월의 수산물'로 새조개를 선정했다.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수심 5~30m

의 진흙 바닥에 살며 가막관과 여자만, 득량만 등 남해안이 주산지인 전남 동부지역에서 연간 1천~1천500t 가량이 생산되고 있다.

주둥이 부분이 검고 살이 두터워야 맛을 내며, 2~3월이 제철로 알려져 있다. 새조개는 한때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던 고급패류로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실맞이  
본사지원  
Sale